

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인 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최대 2곳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유증업소를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이거나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곳도 지원받지 못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유료 공영주차장
11곳 10일부터 2시간 무료

정읍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11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시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여유롭게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주차 무료 시간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기존에 여성과 어르신으로 분산돼 있던 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통합해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수유에 발맞춰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차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마을 '비책기지' 추진 본격화

고창군, 사업추진 간담회 갖고 운영 방향 공유·추진 로드맵 소개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책기지' 사업을 본격적인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고창군 대신면 서점마을에서 관계기관과 청년단체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년마을 사업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고창 청년마을 '비책기지'의 2026년 사업계획과 향후 3년간 추진 로드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일과 삶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공동

체 활동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업이다.

고창 청년마을 '비책기지'는 대신 서점마을을 거점으로 '머무르고, 배우고,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지역을 경험하는 청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을 프로젝트 및 교류 △책과 문화를 활용한 북캠프·독서 모임·문화기획 △지역 농산물 활용 로컬콘텐츠 및 상품 개발 △청년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청년주거·

생활 안내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이다.

특히 청년들이 단순히 지역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일거리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운영하여 고창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착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덕성 고창군수는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행정과 민간, 지역주민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3일 주요 사업장 네 곳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학수 정읍시장, 현장 행정 강화

주요 사업장 4곳 찾아 안전·공정 점검 나서

정읍시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지난 3일 주요 사업장 네 곳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 서부산업도로 확장 공사장, 정읍역과 역 광장을 차례로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운영 준비 실태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부터 이어온 현장 행정을 강화해 사업의 완성도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가지 이양산 일원에 들어서는 치유의 숲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이곳은 치유센터와 숲길, 명상 쉼터 등을 갖춘 산림휴양 시설이다. 이 시장은 집집 단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준비와 시설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명소가 되도록 알찬 운영 콘텐츠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쓰이는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를 찾았다. 시는 올해 물막이그림틀(위터슬라이

드)을 늘리고 그늘막을 보강했으며, 7월부터 벽천분수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철저한 수질 관리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다음으로 서부산업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구간을 기존 4차에서 6차로로 넓히는 이 사업은 교통 혼잡 해소와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시장은 공사 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교통 처리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정읍역을 방문해 역장과 면담을 하고, 정읍의 관문인 역내 시정 홍보 방안, 관광 활성화 계획,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9기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곳은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동안 이어온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주요 사업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 여름 휴가는 고창 명품 숙소에서 힐링하세요"

고창군, 한옥마을·글램핑·유스호스텔 2곳 명품 숙박시설 직영운영

민선 9기 고창군이 한옥마을, 글램핑, 유스호스텔 2곳의 명품 숙박시설 직영운영을 통해 '관광객 2천만 시대' 달성에 나선다. 개방형 예약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으로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공유, 비, 노후철 등 유명연예인이 묵어간 한옥마을은 11객실 규모로 운영된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단체·체험 방문객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바닷가에선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의 글램핑시설(심원면 두어길 55-25)도 군 직영으로 전환해 9개동 규모로 운영중이다. 특히 7~8월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인 '갯벌SEA네마'를 총 12회에 걸쳐 선보인다.

이외에도 탐사르온곡습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온곡습지유스호스텔(아산면 용곡리 269)'과 선운산관광단지 안에 위치한 '선운산유스호스텔(아산면 선운사로 158-36)'도 휴가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하서면,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부안군은 하서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생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에는 총 2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들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생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 호응

고창군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하며 농가와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고창을 방문해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 연속 자문 등록 행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간 근로자와 농가에서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비롯해, 이동 마약검사, 이동 은행 서비스 등 '고창형 현장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신제품 수수 '고은찰' 재배 현장연사회 열려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부안군 동진면 동진리 시범포장에서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특화형 잡곡 신제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현장연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사회는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대응하고 부안 지역에 적합한 신소득작목인 수수 '고은찰'의 재배기술과 기계화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사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고은찰 품종 특성 설명, 휴림과종기를 활용한 직파 시연이 진행됐으며 농업인들과 사업 추진 방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